연중 제16주일

기도서 P. 395 B해
제1독서(에 레 23, 1-6)
제2독서(에 페 2, 13-18)
복 음(마 르 꼬 6, 30-34)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억척스럽게…

김 기 수 신부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과 사랑의 말씀을 듣기위해 많은 백성들이 육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호수가로 가시면 호수가로 억척스럽게 따라 다니자, 예수님께서 "목자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여러가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전해줍니다.

백성들이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하느님 나라와 교훈을 가르치고,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율법학자와 대제관들이 지도자로 있었지만 하느님의 계명을 왜곡되이 가르치고, 율법주의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순을 범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참된 진리와 사랑에 고갈된 상태에 있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읍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자없는 양도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모습은 그 시대인들과 커다란 차이가 있읍니다.

분명 우리는 그 백성들보다도 문명의 혜택을 풍요로이 받고 있는 문화인이며 더 배운 지식인임을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외적인 풍요와 자부에 비해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억척스럽고 한끼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면서 내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이하고 무관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는 억척스럽지 못하고, 굶기를 떡 먹듯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무지한 백성보다 못한 우리를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측은한 생각이 드실지 의심스럽읍니다. 우린 신앙생활에서도 억척스러워야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억척스러움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위해 억척스러워야 합니다.

미온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신앙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힘껏 잡고 예수님이 가는데 마다 따라 나서야 합니다. 행여나 예수님을 놓칠세라 굳게 믿고 늘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활 하나 하나에서 이런 모습을 즉 즐거울때, 괴로울때, 슬플때, 병들 때에도 주님께 의탁하고 영원한 생명에 나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내어 맡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척스러운 신앙에 잠시도 우리를 당신 눈에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도탄(塗炭)에 빠지다

—민생고의 밑바닥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도리를 그르치고 나라를 멸망케 한 제왕으로써 「걸주(桀紂)」라는 이름 속에 함께 불리게 된만큼 중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다. 이 하왕조의 최후의 천자(天子)인 걸왕의 학정에 못이겨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혁명을 감행, 걸왕의 대군을 명조산(鳴條山)에서 격파한 다음 걸왕을 쫓아버리고 천자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은나라 탕왕(湯王)이었다. 이 탕왕이 반란을 일으킬 때 수만 군중을 앞에 놓고 이른바 출진의 서약을 선언한 말 가운데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는 유명한 귀절이 있는 것이다.

덕을 멀리하고 폭위만으로 백성에게 학정을 가한 하왕의 죄악을 밝히고 하늘은 이미 하왕조를 버렸으며 은나라를 새로이 내려주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유하혼덕(有夏昏德)하여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하여 걸왕의 천인무도한 부덕과 악행때문에 백성이 받아야 했던 고난을 「도탄에 빠졌다」는 한마디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도탄의 괴로움」이니 「도탄의 민생고」니 하는 말의 어원으로 글자 그대로 흙탕물과 숯불을 가르키는 말이다. 물론 백성이 도탄의 고통속에서 신음했던 일은 비단 하왕도 말엽인 걸왕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실은 아니다. 고대의 많은 제왕들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우선 우리들의 사회에서만 보더라도 도탄의 괴로움을 실감할 수 있을것 같다.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니카라과」 대통령이 1년여에 걸친 유혈항전과 국제여론에 굴복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미국에 망명하므로서 족벌 독재정치의 막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나는 이야기였다.

숲정이 산책

□ 교회와 사회에 보내는 정평위 백서

오늘의 한국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아래 글은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에서 1979년 부활주간에 발표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인권 각 분야에 걸쳐 교회의 입장을 역사적인 교회 문헌을 이용하여 밝힌 이 백서를 나누어 싣는다.

1. 교회의 시대감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개념은 〈하느님의 백성〉, 〈일치성사(一致聖事)의 상징〉,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상징〉이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의 대표적 징후를 알아야 한다〉는 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회의 고유한 시대감각, 가난한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와 주려는 의욕과 관심에서 솟아오르는 시대감각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교회는 여러 세기를 통한 체험에서 힘을 얻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현 상황이 요구하는 대담한 창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부름 42)

이와같은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의 한국이 처한사회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내면에서 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표면의 상황은 얼핏 보기에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겉 보기와 속 사정이 다르다는 미묘한 현실을 교회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거짓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폭력, 억압, 공포, 약점의 악용때문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강요된 질서, 그것이 참된 질서인가? 사회적 참상도 진정한 질서인가? 고칠 수 없고 속수무책인 가난도 참된 질서인가?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빈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도 참된 질서인가? 수치스러운 부도덕, 사회선을 손상시키는 방종에 관해 무관심한 상황도 참된 질서인가? 합리적인 법이 없는 곳, 법이 준수되지 않는 곳에도 참된 질서가 있는가? 외관상으로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공동선, 합법적 자유, 빈곤한 계층의 향상이 방해받는 거짓 질서가 있다.〉(활동5)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소요가 없이 평온해 보이며, 사회적으로 일부 시민들의 향락풍조가 있다고 해서 이 나라에 참된 질서,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일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는 이 사회에서 지체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79년 2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참석한 중남미 주교회의 때 남미 주교단 대표 아른스 추기경은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를 방어하는 것보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교회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정말로 한 백성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주일미사에 나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러한 각성은 현대 세계의 모든 지역 교회에 나타나 있다.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도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한국사회 각 분야의 현실을 정의로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 분야

〈정치분야로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요청이기도 하다. 즉 책임과 결정의 보다 광범한 분담을 뜻하는 것이다.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의 개념이 성숙하고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한 세계를 예견하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더 잘 깨달을수록 정치 참여의 정당한 소망은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교황 요한 23세는 교서 「어머니와 교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소망이며, 자유의 구체적 행사이며, 자아발전의 길이라고 지적하였다.〉(부름47)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 자유의 행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경쟁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되는 여건에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공권력(公權力), 즉 정권은 다른 여러 민주주의 나라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교대로 국민에게 봉사함으로써 국민적 지혜를 고루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1978년 7월 6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에는 현 집권당인 공화당 후보 1인만이 출마하여 99.9%의 득표율로써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선거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인데, 한국의 4~5개 정당이 있으면서 대통령 입후보자를 한 정당에서만 내고, 다른 정당들은 모두 정당으로서의 궁극적 임무를 기피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이 참여 단계에서부터 비정상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계속〉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읍니다.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동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대신학생 하기방학 야외 모임

본 교구 24명의 대신학생들은 하기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지리산 뱀사골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학업에 열중했던 지난 학기동안의 머리를 쉬면서 방문하신 여러 선배신부님들과도 자리를 같이하여 교구 사목분야의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우중에서도 방문 해주신 교구장 김주교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일치임을 강조하시면서 일치의 정신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셨다.

신학생들은 이번 방학동안에도 각 본당에 파견되어 사목의 경험을 쌓기로 했다.

교구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성서 신학연수회 성황리에 마쳐…

교구내 성직자·수도자의 자질적 향상과 사목에의 지적도움을 위하여 매년 열리는 성서 연수회가 금년에는 지난 12일부터 2박3일동안 가톨릭 센타에서 열렸다. 서인석 신부님의 강의로 구약성서 전반을 다룬 이번 연수회는 예년과 달리 대성황을 이루었는데(신부 62명. 수녀 58명, 수련수녀 32명, 신학생 5명) 교구내의 성직자·수도자가 다 모인 셈이었다.

구약성서에 대한 재인식과 구약성서 사상이 오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은 대호평, 커다란 도움을준 의의있는 기회였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성직자·수도자 세미나 무사히 마쳐…

본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주관아래 열린 정의평화를 위한 성직자·수도자 세미나가 월 16~17일 이틀간에 걸쳐 가톨릭센타 강당에서 열렸다. 신학적, 정치적, 법률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을 고찰해본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모여 대 성황을 이루었다.

신학적 측면에서 서인석 신부님의 「예언자들의 절개」를 비롯해서 함세웅신부, 김영삼 신민당총재, 이문영교수, 이돈명변호사들의 열띤 강연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초대되어 강연을 약속했던 박준규 공화당 의장서리는 사정상(?) 참석치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본 교구장 김주교님께서 합동미사를 주례하시는 강론중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예언자적 소명은 무엇인가? 반문 하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에서 예언자적 소명을 새롭게 갱신 되어야 하며 서로 일치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재인식—이 시대의 구원사업에 앞장서자고 강론하셨다.

사진재료·사진기계·도산매
칼라필림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 건강 관리 센타 ◎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욱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닥트·함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 주 광 고·공 업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M°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번
유 율리아나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 계 점 옆)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교우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세 운 식 당
전 화 ② 8530
군산시 신창동 신생그릴 앞
황 베로니카(기복)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인권강연회…7월 23일〈월〉 오후 8시, 함열천주교회에서
   주최…함열천주교회, 후원…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익산지구 사도회 연합회
2. 교리교사 연수회 : 7월 23일〈월〉~26일〈목〉, 송광사 자연의 집에서
3. 신학생 후보자를 위한 성소교육…30〈월〉~8월 1일〈수〉
   관심있는 젊은이와 부모님들, 본당의 지도자들, 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4. 제1지구 중·고등학생 하기수련회…8월 1일〈수〉~4일〈토〉, 금산면 화울리〈수류〉
5. 제1지구 중·고학생 지도자 1일피정…7월 22일〈일〉 오후 1시, 김제천주교회에서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유아세례 : 27일〈금〉 어머니미사 후
2. 청년합창단 수련회 : 28일〈토〉~30일〈월〉까지
   장소 : 고산
3. 어린이들에게 미사책을 사줍시다
4. 봉헌금에 관심을 가집시다

□ 지난주 봉헌금 : 209,309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 7월 30일부터
   귀여운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2. 첫 영성체 준비교리 : 8월 5일부터,
   매일 오후 4시~5시까지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수녀원 비품구입에 협조해 주신 자비의 모친(레지오 마리에)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사금 : 45,000원
4. 성당의 대형 선풍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신우회 회원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8,26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감사합니다 : 익명 선풍기 1대 기증
2. 진복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회의실)
3. 중·고 하기 수련회 : 8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4. 주일학교 여름방학 :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5.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 8월6일~11일 오전9시30분
6. 영화상영 : 8월 10일, 많은 관람을 바람
7. 미납된 교무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합시다
8. 은퇴신부님 본명축일 협조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4,105원 교무금 : 113,07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학생회 하기 수련회
   일시 : 8월 6일~8월 9일(3박 4일)
   장소 : 진안 양화리 냉천
   참가비 : 1인 3,000원, 쌀 3되, 빠짐없이 참석 바람
   후원 : 사도회, 부녀회, 성우회
   인솔및지도 : 본당신부님, 보좌신부님, 사도회임원, 부녀회원, 성우회원, 청년회원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7월 30일~8월 4일 오전 9시~12시
   특별교리에 국민학교 학생은 하나도 빠짐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예비자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허데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박신부님 지도
4. 봉헌금 봉투를 보시고 미수되신 분은 속히 완납바람
5. 환등기 상영 : 매주일 공식미사 후
6. 성소교육 : 7월 30일~8월 1일
   관심있는 젊은이와 부모님들, 지도자들 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83,30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애령주일 : 10시미사 후
2. 수요기도회 없음
3. 합동기도회 : 7월 27일〈금〉 8시 30분, 숲정이성당
   대상 : 서학동 숲정이 성령가족
4. 알림 : 금주 24일~27일까지 평일미사 없음
5. 하기캠핑(중·고·대학생) : 7월 30일부터

□ 지난주 봉헌금 : 82,73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교리교사 연수회 : 3박 4일 송광사 자연의 집
2. 예비자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
3. 요안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이병호씨께서 수고하시겠읍니다
4. 신협이사회 : 7월 29일, 이사님들의 참석 바람
5. 신학생 후보생 성소교육 : 7월 30일~8월 1일까지
   가톨릭센타 회의실
6. 감사합니다 : 익명—15,000원, 김종욱—15,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21,1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중·고학생 하기 수련회 : 지리산
   7월 31일~8월 3일
2. 만들어진 봉투 총수 : 2,380매
   봉투 사용한 신자수 : 933명

☆ 미사에 참여합시다.
미사는 가톨릭의 상징적인 예절이며 행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만남에 참뜻이 있고 하느님과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빠진 형제는 없는가 살펴봅시다. 다함께 찬미와 영광과 충만한 은혜에 감사합시다

3. 견진자 사진 찾아가십시요(사도회 사무실)
4. 첫 영성체교리 :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오전 9시) 국민학교 3학년 이상

□ 지난주 봉헌금 : 300,30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개강
   때 : 7월 30일~8월 4일까지
   시간 : 오전 8시 30분
2. 8월 2일 물놀이 입니다
3. 주일학교 어린이 몽소승천축일 첫 영성체 준비
   때 : 7월 30일~8월 14일까지
   시간 : 오전
4. 중·고등학생 방학 특별교리시간 마련
   때 : 7월 30일~8월 4일까지
   시간 : 오후
5. 중·고등학생 하계 수련회
   때 : 8월 6일~8일까지
   장소 : 고산
6. 유아세례 : 7월 29일 10시미사 후
   부모님들의 관심과 특별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0,660원

*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 2 7 2